

# KCC, 동반성장지수 평가 “낙제”

동반성장위원회, 최하위 등급인 개선 판정 ... SK종합화학은 우수

KCC(대표 정몽익)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하위인 <개선> 등급을 받았다.

동반성장위원회는 5월27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23차 회의를 열고 대기업 73곳의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권고사항을 발표했다.



동반성장위원회는 KCC를 비롯해 코오롱글로벌, 현대홈쇼핑, 현대백화점, 홈플러스, CJ오쇼핑, LS산전, STX중공업 등 대기업 8사에 동반성장지수 개선 등급을 판정했다.

반면, <우수> 등급은 SK종합화학을 비롯해 삼성전자, 삼성전기, 삼성SDS, 현대미포조선, 현대중공업, 포스코, SK텔레콤, SK C&C 등 9곳이 획득했다.

현대자동차를 비롯한 29곳은 2등급인 <양호>를, 대림산업과 제일모직을 포함한 27곳은 3등급인 <보통>이 주어졌다.

특히, 해외 비자금 사건에 휘말린 CJ그룹과 유동성 위기로 자율협약을 신청한 STX그룹은 각각 계열사 2곳이 <보통> 이하의 판정을 받아 주목되고 있다.

동반성장지수 평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73곳과 체결한 <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>의 이행실적 평가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결과 점수를 합산해 정규분포로 4등급화해 이루어졌다. <저작권 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3/05/27>